

한전KDN, 스마트 에너지 기술 앞세워 탄소중립 해법 제시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서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등 4종 출품
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 자리매김

한전KDN이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앞세워 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전KDN은 10일 “전날부터 1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KEET)’에 참가해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03년부터 이어진 ‘신재생에너지대전(SWEET)’과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이 2023년부터 통합된 행사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탄소중립 신기술 확산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한전KDN은 전시에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전력구 감시시스템 ▲수소도시 플랫폼(K-H2ECP) 등 총 4종의 에너지 솔루션을 출품했다.

대표 출품작인 FRTU는 배전선로의 데이터



한전KDN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KEET)’에 참가해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선보였다. <한전KDN 제공>

를 수집하고 개폐기를 감시·제어하는 장치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현장에 설치돼 실증 중이며 고장 구간 분리 및 우회 공급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는 늘어나는 재생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계통 간 안정적 연계와 분산형전원으로 인한 선로의 전력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쉬운 설치와 보장된 경제성으로 전력 흐름의 불안정을 개선해 전력품질 관리 소홀과 예기치 않은 출력 급변으로 인한 블랙아웃 등의 사고 예방을 도와

다.

전력구 감시시스템은 지하 전력 시설의 화재, 침수, 침입 등을 실시간 감시하며 AI 영상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전국 전력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수소도시 플랫폼(K-H2ECP)’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소비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내 수소도시 실증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수소 인프라가 설비 중심이라면 K-H2ECP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해당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AR), 시각화 포털, 빅데이터·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운영 효율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원주와 안산 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이어 보령, 당진, 부안 등 수소 도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에서 신기술 세미나와 다양한 이벤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심에 ICT기술이 있다”며 “국민의 에너지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매진하는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aT-태국 CP그룹 MOU...“K푸드, 동남아 수출 청신호”

식품유통정보 교환 등 마케팅 협력

한국 농식품 접근성 향상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태국 최대 민간기업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

aT는 10일 “전날 태국 방콕에서 CP AX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내 2천6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CP그룹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CP AXTRA가 운영하는 Makro(168개 매장·520만 회원)와 Lotus's(2천454개 매장) 등 태국 대표 유통브랜드를 통한 한국 농식품의 진출 확대다.

특히 Makro는 식당이나 소매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 도매매장으로 대용량 제품 유통에 특화돼 있어 한국산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의 현지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CP그룹은 1921년 설립된 태국 최대 민간기업으로 태국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농업·식품,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다.

전 세계 4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 분야에서는 태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할인마트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식품유통정보 교환 ▲유망상품개발 ▲수출업체 알선 및 바이어 한국 방문 편의제공 ▲K-푸드 관측행사 등 마케팅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협력의 첫 성과로 올해 12월 제주 프리미엄급 감귤의 Makro와 Lotus's 매장 진출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K-푸드를 동남아 대표 식문화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며 “aT는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농식품이 태국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CP AXTR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베일 벗은 갤럭시 Z 폴딩·폴드7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폴링7을 소개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폴링7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철 폭염 운영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질환 예방 기본수칙

- 3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4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5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기부, 5천7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3천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5천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성장)에 1천500억원씩 3천억원을 출자하며 ‘창업초기 소형’ 부분에도 100억원을 배정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한다. 또 스케일업 펀드는 AI·빅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예산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오는 8월1일까지 모태펀드 2차 출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9월 중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를 조기에 결성하는 운용사를 우대해 연내 펀드 결성과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총 966억원을 출자해 1천6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넉넉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 장이 서는 날 ◎

굴비골영광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중앙로3길 5-22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품 등
영광터미널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3길 5-3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잡화 등
영광고추특화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 100-25 일원	06:00~20:00	고추, 마늘 등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광군

광고문의 : 062)650-2099